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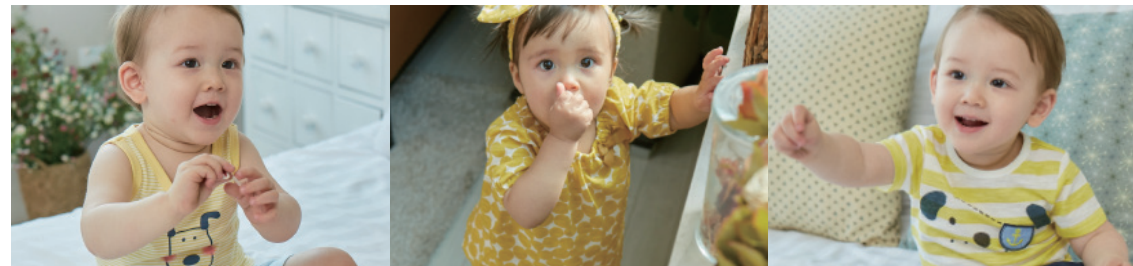


(주)중동텍스타일

기업 정보

회사명 (주)중동텍스타일
대표자명 김원희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1501호
주생산물 유아내의류, 아동내의류
홈페이지 www.organicmom.co.kr

(주)중동텍스타일은 2005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오가닉맘”과 “TFTO”이란 브랜드의 영·유·아동 섬유제품을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회사이다. 유기농원사를 인도, 중국 등지에서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편직, 염색, 나염, 봉제, 디자인 및 최종 유통을 하고 있다. 순수 자연주의를 추구하며 유기농법으로 바르게 키워 재배하는 인도 오지의 목화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뛰어난 원료의 공정을 모두 확인한 후 전 과정 국내에서 제작한다. 현재 “오가닉맘 ORGANIC MOM” 브랜드의 영·유·아동 내의 및 용품, 외출복, “TFTO” 브랜드의 주니어 언더웨어를 제조하고 있다.



원단부터 부자재까지 놓치지 않는 안전성

중동텍스타일(주)는 현재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신생아용품 외 50개 이상 36개월 미만 유아용섬유제품의 KC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KC인증번호는 약 90여개에 달한다. 먼저 원단은 메인 작업 원단이 나오면 KC동일모델 테스트하여 합격이 확인이 된 후에 작업을 진행한다. 또 부자재는 작업 투입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재료 확인하고, 부자재 납품 후 랜덤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테스트 합격 후 봉제 투입한다. 나염의 경우 업체별 시즌별 테스트 진행하며 스냅, 지퍼 등 부자재에 대한 안전성도 놓치지 않도록 안전한 YKK제품만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되는 오가닉원사는 GOTS인증 받은 상품을 수입하며 TC인증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KC인증을 획득함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감도 더 높아졌습니다

KC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KC인증제도를 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KC인증을 담당하는 사내 부서와 직원이 KC인증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사내 KC인증 교육을 받는다. 또한 시즌별 품평회가 끝나면 해당 샘플로 시험인증 기관 담당자를 초빙하여 제품의 디자인이 KC규정에 부합되는지? 수정사항 있는지? 확인하고 디자인 보완 후 “작업지시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및 품평회를 통한 결과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

KC안전관리제도에서 제품의 구분과 종류를 너무 디테일하게 분류해 놓아서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 “KC안전을 위한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 유지함에 있어서도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중동텍스타일(주)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KC인증업무의 불필요함을 줄이는 간소화가 필요하며, 특히 인증 분류의 간소화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다. “KC안전관리의 최종 목적은 안전한 제품 생산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와 분류의 간소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